

호세아는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은 후에 또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개역, 호세아 1:1~2:1]

설

교 제목이 나가 있으니까 그것 보시고 미리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무슨 낙으로 살았는데요? 하고 몇 분이 물었습니다.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어서 안되죠? 그래서 웃기만 했습니다. 미리 성경 보시면서 본문을 상고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본문에 읽기 어려운 낱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이스르엘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분간해야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딸 이름이 뭐죠? 허가 좀 잘 안 돌아가죠? ‘루하마’라는 말 앞에 ‘로’가 붙은 겁니다. (네 글자를 붙여서) ‘로루하마’ 이렇게 읽지 말고 루하마라고 읽어 놓고 앞에 로를 붙이십시오. ‘로 루하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로 루하마.

로 루하마.

로 암미.

로 암미.

로 암미, 로 루하마, 이스르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호세아가 신문에 아마 여러 번 났을 것 같습니다. 노랑 신문이라는 말 있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호세아가 신문에 몇 번쯤 났을까요? 횡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신문에 날만한 짓을 호세아가 여러 번 했습니다. 신문에 몇 번쯤 났을 것 같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한번 보죠. 호세아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가령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 인물로 한마디로 잘난, 멋진 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총각이 어디 가서 소문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교회에 있는 전도사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요. 놔두실 거예요? 놔두시고 그 창녀를 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 결혼을 한 겁니다. 신문에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습니까? 신문에 안 나고 방송에 안 날지 모르긴 몰라도 포항 시내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불신자들에게까지 도요. 호세아가 한 결혼이 그런 결혼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겠느냐 하는데 오늘 본문에만 최소한도로 아들, 딸 합쳐서 셋에 결혼까지 치면 네 번, 그리고 바람나서 집 나가버린 아내를 찾아오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은 됩니다. 이쯤되면 아마 호세아는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유명 인사가 되었겠지만 호세아의 삶은 어떻게 본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참혹하니까 ‘이건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이런 아들을 낳고 어떻게 해서 무슨 낙으로 살았겠느냐 하는 애깁니다. 배경을 조금 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왕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 노릇을 하던 시절에 왕은 누구입니까? 왕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죠? 여로보암이 두 사람입니다. 혼동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과 대항하다가 나라가 갈라져 나갈 때 나간 왕이 여로보암이고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훨씬 뒤의 다른 왕입니다. 여기 나라가 둘이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 유다 왕은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때가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면 '예후의 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예후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예후는 누구냐 하니까 이 여로보암의 고종 할아버지쯤 될 겁니다. 3대조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왕입니다. 이 예후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로챈 왕 아합을 하나님께서 징벌할 때에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진멸할 때에 그 아합이 죽고 피를 흘리고 이세벨의 고기를 개가 뜯어 먹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심판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그가 진멸했던 그 아합 왕의 범죄를 또 따라잡니다. 그도 역시 범죄하고 맙니다. 여기 말하는 예후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조에 해당되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는다는 말씀은 지금 예후의 집에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니까 아합 왕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그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뜻이지만 일단 이스라엘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세벨이 죽을 때 높은 데서 내려다 보고 큰소리 치고 있는 걸 위에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튀고 살이 떨어져 나갔는데 나중에 치울려고 보니까 개가 시체를 다 뜯어먹고 일부만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참혹하게 죽었던 그 장소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참혹한 살육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심판이 임박할 정도로 죄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죠. 이 명령을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해야지' 그것보다는 '아니야. 이건 아무래도 개꿈일 거야. 하나님이 내게 결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호세아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실행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실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명을 준 경우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더러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을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인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진 이름이죠. 조금 다른, 이스라엘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피를 흘리며 죽었던 처참한 장소를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묻어 있는 끔찍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그렇게 붙여 놓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폐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붙였죠. '궁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느낌이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들을 하나 낳고 난 다음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세 아이 이름이 다 끔찍한 이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름 어떻게 짓죠? 저는 사실 우리 아들, 딸은 잘 붙여서 나중에 이 이름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을 듯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름 지으세요? '목사님,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만 어느 목사님께서 "이 이름 좋다. 기드온이

라 해라.” 기드온이라고 붙여버렸는데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 주시니까 좋긴 좋죠.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이름이 튀어도 곤란하니까 조금 고쳤을 것 같습니다. ‘기돈’ 대흥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돈’입니다. 지금 장가갈 때가 다 된 청년입니다. 기드온처럼 뛰어난 신앙의 용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을 지으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좋은 이름이란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누가 지어 준 것이다. 어디서 보니까 이름이 좋더라. 제 친구 모양으로 전화번호부 처음부터 다 뒤지고... 이런 것 말고 기도하며 내 신앙과 내가 가진 신앙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 그걸 고심 고심하면서 짓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친구가 한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성이 강씨인데 순 우리말로 이름을 짓겠다 하고 국어사전을 다 뒤졌답니다. 그래서 강아지, 강나루, 강낭콩 이것만 꼽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 다 그렇게 안 지었습니다. 강누가, 강바울... 이렇게 다 붙여놓았더라구요. 백과사전 뒤져봐도 별 수 없어요. 좋은 이름 지으셔야 합니다.

대흥교회에 재미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박수빈입니다. 한때 이름이 이상하면 학교에서 이름 고쳐준 적 있죠. 애가 담임 선생님한테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저는 이름은 놔두고 성만 좀 바꾸면 안돼요?” 이러더라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지 싶어요. 개가 왜 그랬을는지 빨리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름이 박수빈입니다. 뒤집으니까 ‘빈 수박’이 되더라요. 애들이 빈 수박이라고 자꾸 놀렸대요. 담임 선생님이 “그건 너희 아빠한테 의논해봐라.” 이랬답니다. 이름 지을 때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이름은 그 이름 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담겨져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지은 이름을 한번씩 가만히 새겨 보십시오. 이스라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뭘까요? 피가 튀고 처절하게 심판을 행했던 장소를 연상시켜 주는 이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조선 시대 때 죄인을 끌어가서 목을 쳤던 형장. 그쯤이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때 칼 휘둘렀던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걸 망나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름을 망나니라고 지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애 이름이 망나니입니다. 농담 아니고 호적에 올린 이름이 망나니입니다.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애 이름을 사탄이라고 붙여준 적이 있었죠?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한 거죠. 왜 안 받아주냐고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일본이 떠들썩했습니다. 애 이름을 사탄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애는 일본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걸로 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아이 이름을 만약에 사탄이라고 지어놓으면 이 아이는 필연코 인격 파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아이를 생각해서 이 이름을 받을 수 없다. 아마 재판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요? 앞에 든 예까지 갈런지 안 갈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비슷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딸 아이 이름은 이쁘게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로루하마. 발음도 괜찮고 그럴 것 같네요 그죠? 로루하마. 괜찮습니까? 궁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궁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나 그 다 음에 있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는 별 것 아니다 싶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진 치가 떨리는 욕입니다.

제가 영어 처음 배울 때 미국 사람들 욕이라는 걸 하나 귀동냥으로 알게 되었는데 *God damn*이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큰 욕이다 이러더라구요. 뭔가 싶어서 열심히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렇대요.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욕같아요? 별 욕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무슨 다른 욕을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성이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그 말은 별로 욕같은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가장 심한 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명한 사상 있지 않습니까?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진 가장 큰 욕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갈 때 돌을 막 던지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이랬거든요. ‘가거라 이놈아!’ 이게 욕이에요? 얼핏보면 별 의미가 없는 듯 싶지만 그 말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떠나 가거라. 이진 어마어마한 욕이죠. 하나님

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욕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딸아이 이름, 로루하마나 아들의 이름, 로암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일 심한 욕으로 지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그냥 상상만 한번 해봅시다. 호적계에서 출생신고를 받아 주겠습니까? 쉽게 잘 안 받아주죠. 애가 학교 갈 때가 돼서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 부를 때마다, 아니 애가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어느 학교에 가든지 이 아이 이름은 그 학교, 그 사회에 유명한 이름이 됩니다.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아이 이름에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상한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 발음이 꼭 욕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연세 많으신 교수님은 출석을 부를 때마다 애 이름만 나오면 꼭 5분쯤 시비를 걸어요. “야, 니 이름이 그게 도대체 뭐냐. 바뀌라 바뀌라.” 하는데도 벌써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 이름이 ‘정장승’입니다. (본인이나 그 분을 아시는 분이 이 글을 읽게 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어느 교수님이 출석 부르다가 이분 차례가 되면 꼭 한 마디 합니다. “신학생 이름이 장승이 뭐야. 바뀌.” 그러나 호세아의 아이들 이름에 비하면 아무 흥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망측스런 이름을 붙여서 온 세상에 이름을 날린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욕의 의미에 최대한 가깝도록 번역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떤 건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독사의 자식들아!’가 욕입니까? ‘독사 새끼야’ 이래야 되지 않아요? 성경에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까? 독사 자식이라고 했습니까?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독사의 자식들아가 네 번인가 세 번인가 나오고 독사의 새끼라는 게 한번 나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한번 있어요. 그런데 욕을 하면서 ‘개 자식들아’ 이래요? 그것도 욕 같긴 하지만 개 보고는 자식이라고 안하죠? 그런데 성경 번역을 할 때에는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욕을 번역할 때 욕답게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마 성경에 어떻게 욕을 그대로 올리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번역해 놓았지만 욕이다 싶으면 읽는 사람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호세아인들 앞날이 구만리 같은 청년이 그렇게 창녀와 결혼을 해서 사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나가는 이것이 호세아인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하는 애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호세아의 이런 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네 번이나 일을 저지름으로 해서, 한 번만 해도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 번이나 아이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 놓음으로 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호세아가 결혼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말렸을 것 같아요? 그 호세아를 붙들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극구 뜯어 말렸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너 정말 미치지 않았느냐고 얘기했을까도 모릅니다. 그때 호세아가 대답을 합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2절 끝에 보시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라는 말씀이 붙어 있죠? 이 말씀이 붙어 있는 이유가 호세아의 결혼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행음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런 결혼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하느냐 혹은 했느냐고 물을 때마다 호세아는 ‘내가 이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한 여러분과 결혼했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결혼을 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탓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결혼하기를 원하셨고 결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욕이나 마찬가지로인 험한 이름을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도대체 아버가 되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아들에게 왜 이름을 이렇게 짓느냐? 좀 좋은 이름, 부모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이름, 불러서 듣기 좋고 부르는 사람 부르기 편한 좋은 이름 붙이면 안되겠느냐고 물으면 그럴 때에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겠느냐 말이죠. 그것도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있는데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이스라엘의 피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곳에서 흘렸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예후의 집에 갇는다는 것은 왕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었던 그 심판이 이 여로보암의 집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붙이느냐. 바로 여로보암의 집에, 바로 이 왕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국에 이 이름이 널리 퍼져 나갈 때는 그 이름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저 이상한 녀석이 말이야. 약간 돌았나봐. 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붙였대?” 그러면 이 선고가 꼭 따라잡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대” 자동으로 그 말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더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전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궁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따라 붙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가 선포되어 가는 겁니다. 결국은 호세아의 가족이나 호세아 인생 자체가 시창각 교재처럼 사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셨겠어요?

어떤 면에서 호세아는 살아 있는 순교자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일순간 죽음을 당한 것이 오히려 덜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런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정에 빚대어서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순교라고 불러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칭송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놀라운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셨다 해서 우리가 감동도 받고 칭송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분들이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가족들이 겪었던 고난은 아마 겪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호세아도 사실은 이름은 참 좋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참 좋습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라고 합니다. 남들은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러주는데 정작 본인이나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호세아처럼 가슴이 많이 아픈가보죠? 다른 때는 대답을 잘 하시더니 오늘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게 아마 가슴이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느껴지신다면 아주 좋은 일이긴 하죠. 호세아가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런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호세아가 무슨 낙으로 살았겠어요? 호세아는 이렇게 아픔을 누리면서도 자기 삶이, 자기의 아픔이 나중에 보니까, 이 아픔이 자기만의 아픔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픔이더라는 것을 호세아가 느끼는 거죠. 자기가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 정말 해야 하느냐 고민도 많았을 거고 힘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느꼈던 그 아픔이 나중에 보니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아픔이더라는 것을 느껴버리는 거죠.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 온 세상의 비난을 다 듣는 그 아픔이 자신만의 아픔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느라고 다른 민족들에게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기 체험으로 알아버리는 거죠.

체험으로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은 것 맞죠? 어머니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초등학교 때요? 노래 부르면서 배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언제 진짜 알아요? 부모가 돼서요?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다가 문득 어느 순간에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게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귀엽긴 하죠. 귀엽긴 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부모의 은혜를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배웠으니까 그렇고 그런가보다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서 비로소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면서도 좀 체험적으로 느끼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면 느끼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어디 쉽습니까? 호세아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를 확실하게 알아버리는 겁니다. 호세아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이 아픔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예로 스테반의 순교 장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다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너 이리 와봐. 정말 안 아픈가 한번 해보자.” “너 하나님 믿지?” “예.” “순교할 각오 돼 있어?” “예.” “그럼 한번 맞아봐. 아픈가 안 아픈가.” 왜 안 아파요? 안 아플 리가 없어요.

그런데 스테반의 얼굴이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파서 비명을 질렀을까요? 하늘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돌이 날아와서 때리는 아픔보다 더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 전혀 닥치지 않는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은 믿는 우리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나 똑같이 오는 겁니다. IMF가 어디 불신자에게만 오고 믿는 신자에게는 안 옵니까? 같이 옵니다. 같이 오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 이걸 쉽게 넘기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호세아 역시 가정에서 엄청난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아픔들을 이겨냈던 거죠.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고 있는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돈이 더 있어, 재산이 더 있어, 지위가 더 높아. 이렇게 따져보면 이만하면 됐다 싶은 분들이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만 진정으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질문 받는다면 ‘난 이런 낙으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아니면 다른 걸로 채우셔서 이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것은 글썽... 어느 정도는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멸망을, 그 다음에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고통스러웠던 호세아에게 더 큰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벌한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은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1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한 그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읽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 하나님’ 하면 큰일납니다. ‘자~신 하나님의 자녀 할 것이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 공허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먼 훗날에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수가 무한하게 클 것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나게 많아질 것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라고 해놨는데 이 이스라엘 날이 크다 속에 이스라엘은 뜻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은 뜻으로 보이죠? 나쁜 뜻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본래 뜻은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명이 붙은 그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험한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나쁜 의미로 바뀐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해서 흠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모아 심겠다는 의미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번은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됐다가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넘어가보면 앞에 로자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로암미의 로자를 빼버리고 이제는 암미라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더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암미 하게 하면 아주 나쁜 욕이 되다가 로를 빼버리고 암미라 하니깐 너희는 내 백성이다가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만큼 복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로우하마 했는데 로를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징벌하시고 책망을 얘기하실 때도 회복의 이야기를

뒤에 꼭 붙여놓고 있습니다.

뒷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뒤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이 호세아의 아내가 나중에 가출을 해버리죠. 다른 남자 따라서 집을 나갔는데 그 남자와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사창가에 팔려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데려와요? 아마 돈 주고 데려올 남편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에 돈을 준비해서 찾으러 나가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잘 갔다오라고 하겠어요? 등신요? 등신 그것도 점잖은 말이지 싶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집을 나가 창녀촌에 팔려간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은 열 다섯개. 예수님이 팔릴 때 은 삼 십에 팔렸다 그랬죠? 은 열 다섯개. 은 열 다섯개가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루에 담아서 짊어지고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 반이 어느 정도냐 해서 이리저리 찾아보았더니 아마 나귀에 한 짐 가득 채우면 그게 한 호멜이나 한 호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몸값을 지니고 갈 때 지갑 속에 수표 하나 넣어서 찾으러 가면 남이 어디 가냐 하면 저 쪽에 갔다온다 하고 갔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나귀에 한 짐 지고 어디 가냐?” 뭐라고 그래야 돼요? 팔려 간다? “바른 말 해라. 니 여태까지 해온 짓을 봐서 또 무슨 일 났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공개적으로 온 천지 소문을 내면서 자기 아내를 지금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요즈음처럼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주머니에 넣고 가면 되는데 호세아는 이걸 올려메고 보리를 싣고 온 천지에 광고를 하면서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죠. 집사님 말씀대로 등신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호세아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게 임무입니다. 무슨 대답요? 내가 이런 아내를 찾으러 몸값을 지고 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값을 지고 찾아다니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고 다니시는 그 몸값이 뭐니까? 호세아는 지금 은 열 다섯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고 다니시는 그 몸값이 뭐냐 하면 바로 피 묻은 예수님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호세아가 실물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호세아가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호세아가 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발 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 가슴을 안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좀 알자는 겁니다. 호세아가 외치는 메세지의 전체 내용은 제발 하나님을 좀 알자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 했던 그 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호세아는 잘 압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4절 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 속에는 야! 이놈들아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고 외침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호세아는 스스로 고생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지 하지만 스스로 고생 길로 들어선 거죠. 사랑해선 안될 사람을 사랑한 것이 죄라면 죄입니다. 마치 무슨 유행가 가사같네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호세아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이젠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정은 하나님의 실연의 역사입니다. 시련이 아니고 실연, 다른 말로 하면 연애했 때 차이는 것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차였죠?

아담

그렇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아담을 사랑했다가 실연을 당하고, 노아를 불러내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 고백을 하기도 하고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간접으로 사랑을 전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불러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신다면 결코 또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 뿐입니다. 호세아가 맛보았던 그 쓰라림이 곧 하나님의 쓰라림입니다. 그런 아픔을 또 하나님께 드러서는 안됩니다. 오래 전에 어느 가수가 '왜 주님 같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송을 흐느끼며 부르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나도 가수 한번 해봤으면 싶었지만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같보리 언덕을 오르셨는지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삽시다. 이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며 삽시다.